

자체의 과학기술력으로 이룩한 성과이기에

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중앙버섯연구소를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이날 연구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고있는 어느한 설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며 설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설비를 자체로 만들려고 달라붙었을 때 제기되는 애로가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첨단수준의 설비를 마련하는것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임을 자각하고 떨쳐일어나 마침내는 다른 나라의 설비를 룡가하는 현대적인 첨단설비를 만들어놓을수 있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설비를 보아주시며 한 일군으로부터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였다.

일군의 설명을 기쁨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렇게 첨단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드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중앙버섯연구소를 현대적으로 건설한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병을 없앨데 대한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것이 더 기쁘다고, 계속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나라의 설비들을 들여다 조립이나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는 의의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